



여성경제인협회 전북, 사회적 약자에 200만원 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27일 전북도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랑의 나눔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총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협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정미 전북지회장, 한선화 총무이사, 박은 나눔동아리장, 장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함께 나누었다.

소정미 지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경제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경진원 임직원, 익산 아가페정양원서 정원 봉사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진흥원은 지난 27일 익산시 황등면 읍촌길에 위치한 아가페정양원에서 정원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경진원 임직원 25명이 참여해, 요양시설 내 정원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봉사자들은 낙엽과 잡초를 제거하고 화단을 정돈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아가페정양원은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 입소, 일상용품, 식사 제공, 정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다. 특히 시설 내 아가페정원은 전북 제4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전산장비 지원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월미 경로당에 1일1가구 소통행정과 연계, 전산 약자인 취약계층 등이 사용할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대표 서주원)와 지난 8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컴퓨터 전산장비 서비스 설치 제공한다.

이번 전산장비 지원은 지난 8월 월미마을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민·관업체와 소통행정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진섭 동원샘물 남원대리점 대표, 고향사랑기부

남원시에 따르면 임진섭 동원샘물 남원대리점 대표가 지난 27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진섭 대표는 평소 남다른 애郷심으로 지역청년봉사단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가뭄으로 극심한 물부족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생수 1만5,000병을 기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남원에 기부금으로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동원샘물 대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며,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는 다르네’

무주곤충박물관 & 반디별천문과학관 체험활동 주막...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호응’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고 있는 무주곤충박물관 체험 활동 "나는 누구일까요?"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곤충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9일에는 전문 학예사와 함께 '파장발레 vs 노린재' 두 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며 그 차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는 11월 28일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인 '수달 vs 해달' 구별법을 배우고, 관련 체험물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영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반디휴양림장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생물들을 테마로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현장감 넘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왔다"라며 "무주곤충박물관은 앞으로도 모든 연령층이 함께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익박물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는 오는 12월까지(화~목요일 19:00~21:00) '찾아가는 이동천문대'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 내 천체 전문기가 직접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별자리 강의와 야간 천체관측(달, 토성) 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디별천문과학관에서는 오는 12월까지(화~목요일 19:00~21:00) '찾아가는 이동천문대'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 내 천체 전문기가 직접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별자리 강의와 야간 천체관측(달, 토성) 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염수정 추기경, 무주덕유산리조트 초청 강연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는 지난 27일, 호텔티볼 스투비호텔 중연화장에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초청하여 '인간 존엄과 평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리조트 임직원과 무주 지역 주민, 무주성당 신도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추기경의 깊이 있는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날 강연에는 성장현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를 비롯해 황인홍 무주군수,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원종현 관장, 무주성당의 김경훈 사도 요한 신부와 신도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강연에서 "인간은 평등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기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며, 차별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역설했다.

추기경은 이어서 "처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화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총과 사랑을 사회에 나누고 실천할 때,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현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는 "추기경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찾아주시는 염수정 추기경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 강조했다.

성장현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는 "추기경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찾아주시는 염수정 추기경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지역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나선다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창업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GTEP, 단장 최경숙)이 지역 유망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GTEP사업단은 10월 말 2025 뷰티월드 미들리스트 두바이와 2025 베트남 하노이 웰니스 푸드&라이프 스타일 엑스포에 참가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와 청년 무역인력의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전주 소재 (주)로코가 천연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바이오(Dr.Bio)'로 10월 27~29일 이랑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뷰티월드 미들리스트 두바이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는 GTEP 요원 송수빈·장은지 학생이 동행해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현장 트렌드 분석 등 실무 중심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정음의 (주)바이오텐(Bioten)이 커뮤인 수용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며,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웰니스 푸드&라이프 스타일 엑스포에 참가한다. /정음성 기자



남원시, 결혼이민여성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행사

남원시는 28일 평생학습관에서 결혼이민여성과 여성단체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의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아은진)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의 멘토·멘티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멘토인 여성단체 회원이 결혼이민여성의 '진정엄마' 역할로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추장 담그기 등 한국의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며 요리 방법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은 "멘토 엄마와 함께 요리를 배우며 한국문화를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매월 10일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8일 김제 전통시장에서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카페 이용 시 텀블러 지참하기, '1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에코백) 사용하기', 음식 포장 시 다용도기에 담아가기 등 다양한 실천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시에서 양성한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과 깨끗한 김제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은, 진안 예술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개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8일 진안군 예술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1호'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화재 피해로 학습 공간이 마비된 지역 아동센터의 정상 운영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예술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01년 개소해 인근 지역 아동 33명에게 학습지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예기치 못한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책상과 의자 등 주요 집기류가 파손되면서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전북은행은 'JB희망의 공부방'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지역아동센터를 지원 대상에 선정, 학습용 책상·의자·책장 등 필수 물품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지원해 행정업무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오상근 기자·진안=우태민 기자



순창군 농축협, 농어촌 기본소득 실행 동참 결의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와 관내 5개 농축협의 조합장, 임직원 50여명은 최근, 순창미래발전협의회(회장 서한복)가 주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 선정 화합 한마당'에 참가하여, 기본소득의 성공을 염원하고 농축협도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본소득이 2026년부터 2년간 군민 1인당 월 15만원, 총 978억원이 지급되면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활력 회복 등이 예상된다. 특히, 농가소득 제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협 순창군지부는 관내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 구림농협(조합장 김승운), 서순창농협(조합장 설득환), 순정축협(조합장 남상국)과 함께 '화합 한마당'에 참석하여, 농축협이 모두 함께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다짐하였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아동·여성 폭력 예방 안전 캠페인

남원시는 28일 성원고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여성 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YWCA가성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주최로,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홍보 책자와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과 관련해 일상 속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렷다. 또한 폭력예방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3기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시장 정성주)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3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북스타트 취지에 따라 아이들의 즐거운 첫 독서 경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3기는 바른 직장인 부모를 위해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4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시립도서관 3층 채움터 1강의실이다.

참여 대상은 13개월부터 2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총 10가족으로, 29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문의는 시립도서관(063-540-4137)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